사상의학회지
J. of. Const. Med.
Vol.8. No.2. 1996.

# 부인대하증에 대한 사상의학적치료
## (婦人帶下病四象醫學治療)

孫 永 錫*

대하병이란 대가 흐르는 량이 명확히 증가되고, 색과 질이 이상한 것이 발생되며 혹은 더러운 냄새가 나거나 혹은 기타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다. 서의부과학에서 말하는 "녀성생식계통염증" 중 대하이상 증상자를 사상의학부과에선 대하병으로 변상론치 한다. 아래에 본인의 다년래 연구와 림상체험과 경험을 소개하니 여러동료들께서 참고하시고 가르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하는 제일 처음으로 「황제내경소문, 골공론(黃帝內經素問, 骨空論」에서 "임맥((任脈)의 병이 들면 …녀자대하가취(帶下瘕聚)가 된다"고 하였고 청나라 부산선생(淸·傅山)은 ≪부청년주녀과·대하(傅靑主女科≫에서 백청적황혹 오색대하로 론술하였으며, 그가 창안해낸 완대탕(完帶湯), 이황탕(易黃湯)은 지금까지도 중의림상에서 광범히 쓰고 있다. 력대의학가들 론술이 비록 각기 치우쳤지만 그러나 다수는 대하병이 모든 책임을 폐신(肺腎)이 허한데다가 습열의 포궁(胞宮)음기(陰器)에 침입되었다가 그것의 임맥과 대맥(帶脈)에 련루되어 임맥이 실고(失固)되고, 대맥이 실약(失約)을 일으킨다. 전인들은 대탁(帶濁)을 오색과 오장병변과 대비시켰는데 비록 견강된 곳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하 색질이상에 대해 제시한것은 림상의의가 있는 바 대탁은 본시 음습지물(陰濕之物)로서 다습(多濕)이라는 말은 림상실제에 부합된다.

서의 "녀성생식기관염증"은 병원체가 그 부위에 침입하여 일으킨 염증성 반응으로서 그것들은 생식기관 및 그 주위 런근조직이 어떠한 부위에서 발생한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방면인데 주요하게는 생물성적으로서 그중에서도 세균성의 제일 많이 보게 되어 〈례하면 련구균(鍊球菌), 포도구균(葡萄球菌), 대장간균(大腸桿菌)〉, 그 다음으로 적충(滴蟲), 곰팡이균(霉菌)역시 흔히 보게 된다. 그외에도 매독사구체(梅毒螺旋體)혹은 림병쌍구균(淋病雙球菌), 려과성병투(濾過性病毒)〈매독, 림병, 림파육아종(淋巴肉芽腫)〉등을 일으킨다.

* 中國延邊龍井市 中醫醫院

## Ⅰ. 병인병기

사상병리학의 기본특징은 외인의 병인작용이 되는 것을 긍정하는 동시에 천품인소가(天因素)병을 일으키는 작용을 착중하여 강조하였고 또 외인은 내인을 〈주요하게는 사심(四心)사정(四情)〉통하여 일으킨다는 관점을 주장하였다. 즉 비신이 병이든데다가 사심〈겁심(怯心)두려운 마음(懼心), 불안정심(不安定之心)급박지시(急迫之心)〉과 애와 악의 소욕(愛惡所欲), 사정)≪희노애락〈喜怒哀樂〉≫의 편착된데다가 사기가(邪氣)가 충임, 포궁, 음기에 직범하므로서 임맥이 실고 되고 대맥이 실약되므로서 대하량이 명확히 증가되고 색질이 이상을 발생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대하병을 발생하게 된다.

## Ⅱ. 림상표현 및 감별진단법

병인의 부동함에 따라 표현되는 량과 질기미 역시 다 다르다. 항상 부동한 전신 혹은 국부증상을 동반

대하감별표

| 증상류 | | 적대하 | 백대하 | 월경불통대하 | 음탁대하 | 자장견대하 | 합음양환통대하 | 소복한통대하 | 자궁랭대하 |
|---|---|---|---|---|---|---|---|---|---|
| 월경불순 | | | 월경회박++ | 월경기지연 | + | + | + | + | +<br>암적색 |
| 요통 | | | + | 평전통 | + | + | | | + |
| 하복통 | | + | | 편전둔통 | + | + | + | + | + |
| 하부좌우견인통 | | | | | | | | | |
| 출혈 | | 상시적+<br>간혹적+ | | | | | | | |
| 혈패 | | + | | | | · | | | + |
| 분비물종류 | 황적색 | + | | | | | + | | |
| | 황백색 | | + | + | + | + | | | + |
| | 유백색 | | + | + | + | + | | + | + |
| | 코물모양 | | | | | | + | | |
| | 백음(점액성) | | + | + | | | | | |
| 악취 | | 혹+ | +<br>− | − | | − | +<br>− | − | |
| 압통점 | | 제중석문관원 | 석문<br>관원 | | | 전추외릉대거 | 관원이하<br>곡골까지 | 관원이하<br>곡골까지 | 석문<br>관원 |
| 경경촉지 | | 혹촉지 | | | | + | | | |
| 뇨빈삭 | | + | | | | + | | + | |
| 서의학적명명대조 | | 자궁출혈 | 자궁내막염 | 자궁위치이상 | | 란소종양 | 자궁질부람경관염 | 급성자궁염 | 만성자궁내막염 |

하게 되는 데 례하면 아래배가 아프거나 허리와 미추골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국부가 가렵거나 혹은 처지는 것처럼 아프거나 붓거나 뿔어나게(腫脹)된다.

본인은 명나라 리시진(明, 李時珍)선생의 「본초강목, 지유조(本草綱目, 地楡條」에 의해 적대하(赤帶下), 백대하(白帶下), 월경불통대하(月經不通帶下), 음탁대하(陰鐸帶下), 자장긴대하(子藏緊帶下). 합음양활통대하(合陰陽患痛帶下), 소복한통대하(少腹寒痛帶下), 자궁랭대하(子宮冷帶下) 가지 대하로분류하여 변병병증하였다.

## Ⅲ. 변상론치

사상의학의 증심환절은 즉 사상인의 분류법이지만 여기에선 생략하고 금후 다시 기회가 있게되면 전문제목으로 담론하도록 합시다. 아래에 각상의 병인병기, 치료원칙, 방제(처방)과 림상가감활용법을 소개한다.

### 1. 태음인(太陰人)

#### (1) 병인병기

태음인은 체질상 간대하고 폐소한 까닭에 간기능이 실한데로부터 소장에 열이 생기기 쉽고 폐기능이 약한데로부터 위완(식도)이 한기를 받기쉽다. 열기는 상승하기 때문에 상초가 영향을 받아 폐장이 간조해지고 한기는 하강하기 때문에 하초가 영향을 받아 생식기에 랭기를 받는다.

#### (2) 치료원칙

우선 청폐윤폐제로 폐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간장기능을 억제해주고 청심사화제로 심장의 화기를 눌러주는 동시에 소장의 열기를 쳐주어 야 한다.

#### (3) 처방－조리탕(調理湯)

맥문동 15. 산약 길경각 10. 원육 라복자간 7.5 석창포 원지 오미자 천단주초각 5, 계관화 7.5~15. 변비가 있을 때에는 맥문동을 천문동으로 바꾼다.

### 2. 소음인(少陰人)

#### (1) 병인병기

소음인은 체질상 신대하고 비소한 까닭에 신의 기능이 강한데로부터 한수(寒水)가 더욱 왕성하고 비기능의 불원만한데로부터 위가 한기를 받기 쉽다. 신장음기가 지나치게 왕성하기때문에 생식기들에 오물이 머물게 되며 또 위장이 한사(寒邪)를 받으므로 진양(眞陽)이 허탈된다.

#### (2) 치료원칙

우선 건비승양제로 비장기능을 강화하며 신장음기를 억제하고 온위축랭제로 신장한기를 제압하는 동시에 하초의 침한고랭을 없애버려야 한다.

#### (3) 처방－향부탕(香附湯)

향부자 당귀 백작각 10, 백하수오 7.5 백출 천궁 진피(陳皮)구감초 오수유 소회향각 5. 계관화 7.5~15 생간 3편 대조2개, 처방에서 백하수오를 인삼으로 바꾸면 효능이 더욱 크다. 인삼 또는 백하수오는 황기로 대용할 수 있다.

### 3. 소양인(少陽人)

#### (1) 병인병기

소양인은 체질상 비대하고 신소한 까닭에 비장기

능이 강한데로 부터 위에 열이 생기기 쉽고 신장기능이 약한데로부터 방광하초가 음허되기 쉽다. 위열이 성하면 양기가 더욱 왕성하고 음허가 되면 진액이 더욱 고갈되기 때문에 하초생식기들에 혈부족을 일으킨다.

(2) 치료원칙

우선 자음강화제로 진액고갈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장기능을 강화하고 청위해열제로 내열을 제거하는 동시에 비장기능이 신장을 제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처방－복분지황탕(覆盆地黃湯)

숙지 20. 복분자 10. 백봉령 택사각 7.5 목단피 방풍 강활 차전자 구기자각 5, 계관화 7.5~15. 이 처방이 복분자를 현삼으로 바꾸면 현삼지황탕이고 ; 본방내용에 구기자를 10. 으로 복분자를 5. 로 하고 현산지골피각 5. 을 가하면 구기지황탕이라 한다.

## 4. 림상가감활용법

(1) 적대하증(자궁출혈)

태음인은 조리탕에 저근빅피초혹 10. 가하고 길경을 감한다 ; 소음인은 향부탕을 전부 초흑해서 사용한다 ; 소양인은 복분지황탕의 숙지를 건지로 바꾸고 현삼 5. 을 가한다.

(2) 백대하증(자궁내막염)

태음인은 조리탕에 저근백피 10. 상실 5. 을 가하고 길경과 원지를 뺀다 ; 소음인은 향부탕에 복룡간 10. 을 가하고 소회향을 감한다 ; 소양인은 복분지황탕에 모려분 10. 금은화 5. 을 가하고 차전자와 구기자를 감한다.

(3) 월경불통대하증(자궁염, 질염, 경관염, 위치이상)

태음인은 조리탕에 대황주증 10. 을 가하고 속단을 감한다. 약을 먹은후 배가 아프면 백비탕을 먹어야 한다 ; 소음인은 향부탕에 도인 홍화각 5. 을 가하고 오수유소회향을 감한다 ; 소양인은 복문지황탕에 목통 10. 현삼 5. 을 가하고 차전자 복분자를 감한다.

(4) 자궁음탁대하증(하감, 림투성자궁내막염)

태음인은 조리탕에 상실 10. 을 가하고 산약을 감한다 ; 소음인은 향부탕에 복룡간 10. 을 가하고 소회향을 감한다 ; 소양인은 복분지황탕에 현삼 10. 금은화 5. 을 가하고 차전자와 구기자를 감한다.

(5) 자장견대하증(란소낭종, 란소종양)

태음인은 본방에 유백피 10. 을 가하고 산약을 감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도인 5. 를 가하고 오수유를 감한다 ; 소양인은 구기자탕에 현삼 지골피를 가한다.

(6) 합음양환통대하증(질염, 경관염, 자궁질부미란)

태음인은 본방에 건율 15. 조금주초 5. 을 가하고 길경과 원지를 감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익모초 초흑 7.5 건강초흑 5. 을 가하고 오수유와 소회향을 감한다 ; 소양인은 본방에 황백을 가하고 차전자를 감한다(소양인은 본래 열보통이고 한복통은 적다).

(7) 자궁랭대하증(자궁내막염, 혹은 질부미란, 발육부전)

태음인은 본방에 건율 35. 을 가하고 길경을 감

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포부자 5. 을 가하고 소회향을 감한다 ; 소양인은 본방에 지모 황백각 5. 을 가하고 차전자와 강활을 감한다.

### (8) 붕루증(공능성자궁출혈등)

태음인은 본방에 저근백피초혹 15. 아교주 7.5 포황탄 10. 가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익모초초혹 15. 삼칠근충복(沖下)7.5 진초초 7.5~15. 향부자초혹해 쓰거나 감한다 ; 소양인은 본방에서 숙지를 감하고 생지 현삼각 15. 형개탄 10. 자유탄 25.

### (9) 폐경

태음인은 본방에 대황주중 5.~7.5 가하고 천단을 빼고 택란엽 7.5~15. 생포황 10. 을 가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소목 15.~35. 도인 홍화각 7.5~15. 원호단삼생천초각 15. 을 가한다 ; 소양인을 본방에 로회목통각 7.5 급성자(急性子)50. 를 가하고 차전자를 감한다.

### (10) 급만성복강염

태음인은 본방에 저근백피 15. 상실 7.5~15. 원호 7.5~15. 을 가한다 ; 소양인은 본방에 인동등 혹은 홍등각 15~25. 모려단 15. 가하고 차전자를 감한다.

### (11) 란소낭종, 종양, 수란관에 염증성물집이 생긴자

태음인은 본방에 천산갑초 7.5~15. 저근백피 15. 포공영 25. 택란엽 7.5~15. 생포황 10. 을 가하고 산약을 감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소목 15.~35. 도인 삼릉 봉출각 50. 단삼 15. 반지련 25.~35. 천초 15. 를 가한다 ; 소양인은 본방에 지골피 7.5 인동등 혹은 홍등각 25. 황불류행 10. 호장근 15.~25. 천화분 10. 을 가하여 동변에 타서 먹는다.

### (12) 자궁발육불전

태음인은 본방에 해송자 15.~25. 음양곽 15.~25. 건율 15. 을 가한다 ; 소음인은 본방에 단삼금앵자각 15. 파국 7.5~15. 원호 7.5~15. 녀정실 복분자각 15. 육종용 7.5 해룡 혹은 해마각 1개 가한다.

## Ⅳ. 전형적인 병례—병안소개

### (1) 태음인 병례

심××, 녀, 26세, 기혼녀, 연길시진학가인. 초진 : 1993년 5월 4일. 증상 : 혼후불임, 월경후기, 월경량의 작으면서 암색인데 질은 희박하다. 대하는 누르면서도 더러운 냄새가 많다. 머리가 어지러우면서도 아프고, 권태감이 있으면서 맥이 없고, 꿈이 많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구갈이 난다. 소변이 누르면서 대변이 굳으며, 배가 아파서 지긋이 누르고 있고, 면색의 위황하고 요통이 있다.

백 : 현삭. 혀 : 설태가 담홍. 부산과내진 : 궁격은 광활하고, 자궁이 2급후굴되고, 량축부건들의 명확한 압통이 있다. 석문, 포문, 자호혈위+시의진단 "만성복강염" 변증 : 습열온결, 기허혈체(濕熱溫結, 氣虛血滯)되었다. 치료원칙 : 청열화탁, 익기활혈(淸熱化濁, 益氣活血)시킨다. 처방 : 천문동 15. 저근백피 15. 건율 15. 포공영 25. 새포황 10. 태간업 7.5 산약 10. 원육 7.5 라복자 7.5 석창포 5. 천단주초 5. 천산갑초 7.5 록각교충복(沖下) 7.5 계관화 7.5, 6. 첩식, 련속3주일간용. 치료효과 : 월경이 점차적으로 정상이 되고 요복통도 점차 소실되었으며, 대하가 희게 되었고 량도 작아졌는데, 그후 모두 5차례 진찰하였다. 치료효과 : 통경이 완전히 없어지

고, 백대도 정상이 되었다. 부신과 내진복사 : 자궁이 심압통이 있는외 모두 정상이다.

1994년 3월 1일 연변부유병원에서 수련관통기검사한 결과 통창되었고, 따라서 임신이 되어 1995년 월 8일에 생남 하였는데, 모자가 평안하다.

### (2) 소음인병례

맹××, 녀, 31세, 기혼녀, 화룡사복동진인. 초진 : 1992년 10월 15일. 증상 : 제일첫산후 월경의 문란해지고, 아래배가 아프면서 허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픈것이 1년반이나 된다. 서의진단으로서는 "자궁내막염"인데 월경이 선후 무정로서 량이 많고 암색이고, 두젖이 뿔어나는 감이 있고,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고, 대하색은 누르나 냄새는 없다. 맥 : 세삭. 혀 : 설태가 좀 엷으면서 진득진득하다. 석문, 관원혈위+. 변증 : 한습응체(寒濕凝滯)되었다. 치료원칙 : 온신통양, 익기조중(溫腎通陽, 益氣調中)시킨다.

처방 : 향부자 10. 당귀 10. 백자 10. 황기 25. 백삼 7.5 백출 5. 천궁 5. 진피(陳皮) 5. 구감초 5. 오수유 5. 원호 7.5 익모초 15. 백화사설초 25. 계관화 7.5, 6 첩시식, 련속 3주일간용. 치료효과 : 월경이 점차 정상으로 되었고, 아래배 아픈것도 점차 경감되었으며, 백대도 적어졌다. 1993년 1월 15일, 부인과내진복사 : 궁경의 중등도 미란되고, 자궁이 후굴되었으나 대소는 정상인데, 우측부건염에 좌측이 조금 뒤로 심압통이 있다. 진단만성부건염, 궁경염. 모두 6차례 진찰하였는데 먼저 처방에다가 애엽 7.5 계혈등 15. 도인 10. 천초 7.5 를 가하였다. 치료효과 : 월경이 완전히 정상 되었고 배가 아프지 않다. 1993년 3월 5일, 부인과내진복사 : 궁경의 중등도 미련되고, 심압통이 있으나, 그외엔 다 정상이다. 1993년 5월에 임신되어, 1994년 2워 8일에 녀자애를 순산하였고, 산후 40일 인데 염증이 이미 다 나았다.

### (3) 소양인 병례

곡××, 녀, 26세, 기혼녀, 룡정시개산툰진인. 초진 : 1994년 10월 15일. 증상 : 첫산 4개월만에 어린애가 병으로 죽으니 너무 슬퍼서 비감하게 손상받으후, 월경이 9일동안 지속되고, 량이 많은데다가 어혈덩지가 있으면서 아래배가 몹시 아프다. 서의진단으로는 "수란관염, 자궁경염" 환자는 심정이 억울되고, 심계가 있고, 식욕이 차하고, 누런 대하가 많다. 맥 : 현삭. 혀 : 설첨이 붉으면서 설태가 박백하다. 대거, 관원혈위+. 간울기체(肝郁氣滯)되었다. 치료원칙 : 소간리기, 화락소어, 겸고충임(疏肝理氣, 化濁消瘀, 兼顧沖任)시킨다. 처방 : 수지 20복분자 15. 백봉령 7.5 택사 7.5 방풍 5. 강활 5. 차전자 5. 구기자 15. 현삼 5. 지골피 5. 홍등 25. 시호 15. 호박충복(沖下) 7.5 계관화 7.5, 6 첩식, 련속 3주일 간용, 치료효과 : 월경이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되었고, 복통이 경감되었으며, 그외 증상들은 모두 호전되엇다. 1995년 2월 15일, 부산과내진복사 : 가궁경의 중등도 미란되고 자궁후굴인데 대소는 정상이며, 심압통이 있고 부건의 압통이 있는바, "만성복강염"이 호전되었다고 진단되었다. 그후 모두 4차례 진단하였는데 1996년 2월 20일에 남자애를 순산한 후 연변병원부산과검사결과 복강염이 이미 다 나았다.

## Ⅴ. 총화결론

1. 본인이 사용한 "태음인-조리탕, 소음인-향부탕, 소양인-복분지황탕"은 "선사-중국조선민족의학(사상의학) 선구자 김구익선생"과 "조선동의학연구소 연구사 김희성선생" 께서 공동히 연구 창제하신

"협방밀방"으로서 ; 본인이 다년례 림상응용과 체험으로 보아 이 세처방은 참으로 기여하고도 신기한 효과가 있으며, 능히 대하병을 돌파하고 정복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은 명나라 리시진선생(明, 李時珍)의 「본초강목, 지유조목(本草綱目, 地楡條目)」대하분류법에 의하여 8가지 나누었는데 림싱실제에 부합된다.

2. 림상에서 사상의학을 주체로 서의를 결합하였는데(집목의 방법), 즉 부인과내진 촉진법과 침구경락혈위 상응점과 기본상 부합되었다. 례하면 자궁내막염, 란소낭종등은 그 혈위 상응점에서 지압통(指壓病)의 산생되었다.

3. 서의부과병중, 례하면 녀성생시기관염증, 종루등은 가히 대항이상증상이 출현되게 되는데 "사상의학의 리법방약(理法方藥)"을 운용하여 복강염, 음도염, 궁경염, 자궁경압등에 대해 "변사상변병변증론치(辨象辨病辨證施治)"하게 되면 능히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대하병의 론치에 대하여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다.

"사상의학"은 조선민족의 전통지 "심신의학(心身醫學)"로서, "사상의학"의 병리에선 외인이 병인작용을 긍정하는 동시에 치중하여 천품인소(天品因素)가 병을 일으키는 작용을 강조하였고, 또 외인은 내인 즉 "사정(四情)과 사심(四心)", 및 "애악소욕(愛惡所欲)"이 편착된데다가 혹은 사기(邪氣)가 충임, 포궁, 음기에 곧게 직접 침범하여, 임맥이 실고(任脈失固), 되고, 대맥이 실약(帶脈失約)을 일으켜 대하병을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림상에서 "의학심리학"을 중시하여야 하는 바 약을 쓰는 동시에 "심리수양교육"을 잘하여야 하는 바 이는 질병의 치료호전과 예후에 밀접히 련관된다.

5. 계관화(雞冠花, FIOS. CELOS : ac)림상응용문제 : 계관화는 비름과(Amaranthaceae)에 속하는 맨드라미(Celosiacristata)의 꽃이삭을 말린것으로서 각지에서 꽃보기 식물로 심는다. 성미귀경 : 맛은 달고 떫으며 성질은 서늘하고(甘凉), 간과 대장경에 작용한다. 효능 : 지혈(止血), 지사(止瀉), 지대(止滯)작용이 있다.

본인의 림상체험에 의하면 계관화에 붉은것과 흰것(紅白)두가지 품종이 있는데 치료효과가 길다. 계관화는 대하병에 유명하고도 진귀한 약제로서 신기하고도 특이한 효과가 있는바 세가지상에 다 써도 독부작용(毒付作用)이 없다.

그외에도 계관화 단종으로 주사약을 만들어서 근육주사 혹은 혈위주사 례하면 삼음교(三陰交), 축빈(築賓), 포문자호(胞門子戶), 관원(關元)등 혈위에 놓아서 량호한 효과를 거두었다.